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198장** **다같이**

1.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떤 때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2.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 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3.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에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4.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어둔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 멘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요한복음 6:5-14** **인도자**

설 교 **“ 드림의 기적 ”**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1. 소유하지 않고 소통하며 나누는 7월이 되게 하옵소서.
2. 교회학교 여름사역과 청년 단기선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3. 축복기도대상자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드림의 기적

요한복음 6:5-14

오병이어 이적은 4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물질 이적이다. 요한은 이것을 네 번째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물질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이 이적은 유월절에 벌어졌다. 새 이스라엘은 이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대신 예수님께 나아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 오병이어는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음을 보여준다. 하나님 나라가 개입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으며, 예수님은 육신의 배고픔만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 오병이어 기적은 다양한 영적 교훈을 준다. 우선은 긍휼 사역이다. 예수님께서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김’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나’로서 ‘환대와 연민의 감정’이다. 이 이적은 또한 ‘하나님의 수학’을 알려준다.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려 하신 목적은 물질 문제를 포함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을 알려 주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 빌립에게 무리의 배고픔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셨다. 반면 빌립은 “얼마나”에 관심을 둔다. 장소를 묻는데 액수로 답했다. 양식이 ‘어디에서’ 오겠느냐고 물었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고 동문서답했다. ‘1만 명에게 조금씩 줄지라도 200테나리은 떡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계산한 것 같지만, 정확한 계산이 아니다. 빌립의 계산에는 예수님, 하나님, 믿음, 기도 등의 요소가 없다.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만 있지 신앙적인 대처가 아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수학이다. 신앙의 상수를 반영하지 않는 인생의 방정식은 무의미하다. ▶ 이때 갑자기 안드레가 등장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려 하지만 그도 무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어린아이 하나가 가져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지만, 그것의 가치를 무시한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요 6:9). 안드레의 믿음도 거기까지였다. 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은 위력을 발휘한다. 당신은 가능한 것을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있는 것을 찾으신다. 예수님께는 쓸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은 없다. 작은 것을 통해 큰 것을 이루신다. 하지만 아무리 적은 것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1인분이 10,000명분 이상으로 늘어났다.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정신이 모두를 먹인다. ▶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 예수님은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4개의 동사가 보인다. “가지다” “축사하다” “떼다” “주다”. 축사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뜻으로 주어진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선행감사다. 기적은 예수님께서서 떼어 주실 때 일어난다. 줄 때 즉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 현세대는 소통보다 소유를 강조하지만, 소통할 때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눌수록 더 많이 남는 역설이 일어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눅 6:38). 드림은 농작의 원리다. 심은 대로 거두고, 심지어 심은 것 이상으로 즉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거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많이 심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적게 심는 것이 두렵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모든 물질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이를 자유롭게 나누는 것이다. 오병이어 이적을 통하여 1)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는 없다. 2) 예수님이 쓰실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은 없다. 3) 예수님이 채우실 수 없을 만큼 깊은 굶주림은 없다는 것이다.